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동체주의 이론적 해석 : 델파이 방법을 통한 적용가능성 탐색¹⁾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ommunitarianism for Maeul Mandelgie by the Delphi Method

김진아 Kim Jinah²⁾

Abstract

Attention to Maeul Mandelgie, which means community building project in Korea, is rising sharply as self-reflection on the government and market-driven development policies is gaining momentum. But it is true that discussion on values that must be pursued by Maeul Mandelgie and its evaluation criteria are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a communitarian perspective in Maeul Mandelgie Projec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theoretical review and delphi survey have been conducted. The theoretical study has been performed focusing on Communitarianism and delphi survey, has drawn out 'participation, interaction, and consensus building' as components of Communitarianism. The delphi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experts in Maeul Mandelgie to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components. In the delphi survey,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participation, mutual cognition, degree of participa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were evaluated as sub-components of participation, interaction skill, trust building, distribution of power, and the type of leaders were evaluated as sub-components of interaction, and deliberation proces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mplementation of agreement, and the enhancement of community spirit were evaluated as sub-components of consensus building.

Keywords: Delphi Method, Communitarianism, Participation, Interaction, Consensus Building, Maeul Mandelgie Projec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개발의 관점이나 철학은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한국의 도시개발 사업은 산업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활용되었다. 효율성

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기반한 도시개발을 통해 우리는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핵심 가치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형평성 있는 배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 전체의 총량적 편익증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편익배분과 공동체적 삶에는 무

1) 본 논문은 김진아(2013)의 박사학위 논문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 | Ph. D., Dept. of Urban Administration, Univ. of Seoul | kja7911@nate.com

관심한 공리주의적 사조가 팽배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성·효율성 위주의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빈곤층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지역 공동체는 붕괴되었으며, 도시의 정체성도 무너져버리게 되었다.

정부와 시장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회의와 시장기제를 통해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은 공동체주의의 정의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도시공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마을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다. 공권력과 자본에 의한 도시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과 마을공동체를 잃은 도시민의 저항으로 시작된 마을만들기는 노무현 정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가 재개발정책의 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수많은 사업이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만들기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기심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 마을만들기가 추구해야 할 철학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 정의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이론연구를 통해 공동체주의적 정의의 관점을 구체화하고, 공동체주의의 정의론이라는 철학적 논의를 마을만들기에 적용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또한 철학적 관점을 공간 단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요인들이 마을만들기에 적

용하기 적합한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델파이는 총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델파이 1라운드는 2013년 3월 26일~4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라운드 설문은 각 항목마다 다른 패널들의 1차 델파이 응답 결과를 제시하여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하였고 패널이 각 항목에 대한 재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패널들의 2라운드 응답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정의와 관련된 철학적 관점을 공간적으로 해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기반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한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문제를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살펴본 초기의 연구들은 롤스의 차등원칙을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에 적용하는 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개념적 차원의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이후 롤스의 보편적 원칙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제 도시계획 및 도시재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합동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혜정(1994)의 연구,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변영진(1994)의 연구, 그리고 택지공영개발사업의 부정의를 분석한 위종희(1999)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박재길 외(2004)는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안근오(2011)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외에 공동체주의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비교하거나 교

육적 측면에서 공동체주의 교육관의 적용방안을 고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의론적 관점을 도시문제를 바라보는 틀로 활용하기 위하여 롤스의 ‘사회적 정의’를 택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배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공리주의적 관점의 도시개발 혹은 도시계획이 초래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도출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개별적 특성을 지닌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는 롤스가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가지는 논리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롤스가 가정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속의 당사자들은 서로를 배제한 상호 무관심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공동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참여성을 중시하고 보다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합의를 지향하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이 필요하다.

2. 이론적 검토

1) 공동체주의 관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가 대안적인 도시개발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철학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계획활동의 적법성 기준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철학사조에서는 목표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합리성’이 중시되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획은 소수의 계획가가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계산하여 최적의 대안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적이고 기술관료적인 가

치관에 바탕을 둔 계획은 도시 전체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를 경시하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후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자유 평등주의의 철학적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관련 이익집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성’이 계획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되었다. 계획가는 특정한 이익, 특히 현재의 정치적 영향구조하에서는 잘 반영하지 못하는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다. 최근에는 참여와 의사소통, 합의 형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부각되면서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려하는 ‘참여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다. 참여, 의사소통, 대화를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계획을 위한 참여적 전환(participatory turn)의 길을 취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에서 벗어나 상이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종합적·합리적 계획이 지닌 일방적, 하향적 계획 과정의 한계를 느낀 계획이론가들은 주민의 주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옹호계획, 도시계획의 협상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환거래계획,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계획 등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공급 위주의 기능중심적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과 인간 중심적 도시화에 대한 욕구는 미국의 뉴어바니즘, 영국과 유럽의 어반빌리지, 일본의 마치즈쿠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2) 마을만들기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는 공권력과 자본에 의한 도

시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과 마을공동체를 잃은 도시민의 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1960~1970년대의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으로 강제이주와 생활 터전의 해체를 경험한 도시민빈지역의 주민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기초한 지역운동의 전통, 자립적 경제를 위한 생활협동운동, 환경·생태 공동체운동 등의 형태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그리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등의 환경변화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서울 북촌과 대구광역시 삼덕동, 청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등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주민참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정부 역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발굴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3년간(2007~2009년) 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등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지만 사업 선정을 위해 급조된 주민참여, 사업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면서 마을만들기 역시 중단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기호 외 2012: 23). 최근에는 주민참여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주거지 정비방식을 위한 대안 개발의 방식으로 마을만들기가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

사업,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등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지역 및 도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III. 공동체주의의 구성요소 도출

1. 공동체주의의 의의

공동체주의를 논의하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속을 꾀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에치오니는 공동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영향력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 역사,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이다(Etzioni 1996).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가치나 규범, 역사, 정체성 등의 특정 관습들을 공유, 활용함으로써 상호 의존성을 유지·강화시켜 나간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선을 창출한다(송재룡 2001: 109-111).

1980년대 샌델(Sandel)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토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보다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접근법을 통해 공동체적인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자율성을 지닌 개인들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상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자유주의가 국가와 권력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

는 단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면 공동체주의는 좋은 사회를 향한 요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개체로 보고, 공동체를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 간의 협동체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관계성을 지닌 개인들이 참여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공정신을 지닌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공동체가 권위주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도덕적 관념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과거의 전체주의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닌 사람들이 상호 의존적인 형태로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고유한 가치, 규범, 정체성 등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관계성을 유지·강화시킬 수 있다. 즉, 현대의 공동체주의는 사회의 질서와 자유의 토대 위에 '공동체의 결속'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에치오니는 공동체의 두 가지 기본 속성인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질서 각각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심력(centrifugal forces)'과 '구심력(centripetal forces)'으로 설명하고, 이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동체주의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적 관점(historical and contextual)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의원칙을 모든 사회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설정한 반면, 공동체주의는 정의를 보편적

이거나 역사와 무관한 원칙들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 공동체에 있어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자유주의의 접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공동체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물리적인 배경에 따라 상이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신념, 가치 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어떤 여건에나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보다는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접근법을 통해 상황적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자유주의의 절차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의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의 역사주의적이고 맥락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숙의(deliberation) 과정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바라본 개인은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다. 개인의 자발적 합의는 특정한 이해관계나 도덕적인 임의의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롤스는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을 통해 모든 이가 정의의 원칙에 자유롭게 합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자아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좋음을 바탕으로 옳음을 판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의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숙의 과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나 지식, 힘, 선호 등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베일로 인해 그 같은 차이

가 배제되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하고 똑같은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가정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생각이나 관심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 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때 타인에게도 이에 못지않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주의가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right)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공선을 도출하기 위해 아래로부터(bottom up)의 권력관계를 지지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참여 과정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자생력을 향상시켜 구성원들의 권한과 소속감을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ites 1998: 58). 또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과 시민정신의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2. 분석요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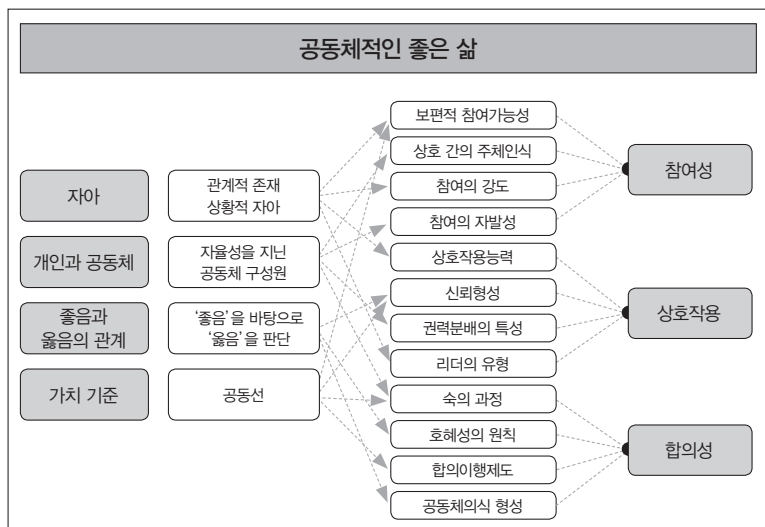
공동체주의의 개인은 구성적·관계적 자아로서 공동체적인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자율성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고유한 가치, 규범, 정체성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 상호 간의 관계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속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좋음과 옳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goodness를 바탕으로 goodness를 판단하여 공동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주요 관점을 바탕으로 참여성·상호작용·합의성을 마을만들기에 적용가능한 요소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를 공간에 투영하기 위해 참여성에서는 ‘보편적 참여가능성, 상호 간의 주체인식, 참여의 강도, 참여의 자발성’으로 세분하였으며, 상호작용은 ‘상호작용능력, 신뢰형성, 권력분배의 특성, 리더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합의성은 ‘속의 과정, 호혜성의 원칙, 합의이행제도,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세분하였다.

1) 참여성

구성원들의 참여는 공동체주의의 정의론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 공동체 속의 자아는 홀로 살아

그림 1_ 마을만들기에 대한 적용가능 요인



가는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공동선에 대한 결정은 동등한 권한을 지닌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처럼 참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참여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참여성은 각 부문의 주체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참여자들의 참여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참여가능성으로 각 부문의 주체들이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특정한 주체들에게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를 통한 상호 이해와 합의의 형성도 제한된 특정한 주체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 간의 주체 인식이다. 각 주체가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참여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 자신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도 나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의 강도로 각 주체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수준이나 영향력을 말한다. 참여의 강도는 참여 정도에 따라 소극적 참여, 절차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³⁾ 소극적 참여는 마을만들기의 주도적 추진 주체가 다른 주체들에게 일방향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의사전달을 취하는 형태다. 절차

적 참여는 양방향의 관계로 마을만들기의 추진주체가 협의해야 할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주체들은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련 자료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는 주체 간의 협력(partnership)에 기초한 관계로 참여 주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정책의 과정 및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기제로는 토론회나 주민협의회, 주민제안, 마을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참여의 자발성이다. 구성원들이 외부의 강압이나 타의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록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상호작용

공동체의 구성적 자아로서 개인은 구성원들과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망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자의 활동에 대하여 다른 행위자의 활동이 뒤따라 일어나거나 또는 그런 활동에 자극을 받아서 또 다른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행위자의 활동이 다른 행위자의 활동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와 관련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창출하며, 특정 관습들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강화시킨다.

첫째, 행위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3) OECD는 참여의 정도를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른스타인(Arnstein)은 비참여 단계, 형식적 참여 단계, 실질적 참여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를 고려해야 한다. 선(先)행위자의 활동이 의도한 대로 다른 행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전달자의 전달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작용능력은 지역의 이슈를 공유하거나,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신뢰형성이다.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사이의 신뢰형성이 필수적이다. 신뢰는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대한 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사적(개인적, 미시적, 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적(사회적, 거시적, 제도에 대한) 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뢰형성과 상호작용 간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참여, 호혜성 등의 요소들은 결국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셋째, 행위자 간의 권력분배의 특성이다. 권력이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저항에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모든 소통참여자에게 권력이 고루 분배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권력이 특정 주체에 편중되어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일 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유형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리더가 지시적인(directive) 형태를 보이기보다는 발전적인(developmental) 형태를 지니는 것이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발전적인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담당한다.

3) 합의성

공동체주의자들은 갈등에 대해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을 중요하게 여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는 행위자들에게 합리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강제 없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합의형성이란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인들이 장기적이고 대면적인 토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계획이나 정책 또는 행동전략에 관한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를 지닌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정하는 속의 과정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었는지,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된 합의가 도출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구성원들이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공동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도출된 공유가치로서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도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는 ‘좋은’을 바탕으로 ‘옳음’을 판단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는 호혜성의 원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호혜성⁴⁾은 이해관계, 예상된 보상의 즉각성과 예상된 보상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일반화된(generalized) 호혜성, 균형잡힌(balanced) 호혜성, 부정적(negative) 호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보상의 즉각성과 등가성이 낮다. 균형잡힌 호혜성은 직접적인 교환으로서 예상된 보상의 즉각성과 등가성이 높고, 이해관계가 서로를 공정하게 고려한다. 부정적 호혜성은 일

반화된 호혜성의 반대인데, 자기 이해관계를 최고로 고려하며, 교환된 자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등가적이며, 보상의 즉각성이 매우 짧다.

셋째, 합의이행 측면에서 본 합의이행제도의 여부다. 합의를 이행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또 다른 규범을 만드는 것이며, 구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합의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합의된 내용이 실행이 되었는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공동선이 이행된다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간의 대립보다는 경쟁과 양자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합의이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일련의 마을만들기 과정을 통해 진행된 활동들이 구성원들의 자력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구성요소 평가 : 델파이 분석 결과

1. 델파이 조사 설계

델파이는 통제된 피드백이 제공되는 3~4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는 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집단으로 하여금 개별적 차원이 아닌 전체적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기법이다(안진성 2011: 38). 델파이기법은 익명성

(Anonymity), 피드백을 통한 반복설문의 실시(Iteration with controlled feedback), 참가자 응답에 대한 통계적 처리(Statistical group response)라는 유용성을 지닌다(Martino 1993: 17-19).

델파이기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가의 선정과 라운드 횟수의 결정이다(노승용, 박경준 2009: 124-125). 우선, 델파이기법은 전문가의 주관적·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조사대상은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능력, 참여의 성실성, 참가자의 수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⁵⁾ 또한 전문가의 수뿐만 아니라 몇 단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델파이기법의 목표인 합의도출을 위하여 몇 차례의 라운드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델파이 라운드의 수는 패널들이 합의점을 찾는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3라운드에서 5라운드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

본 논문은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모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판단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패널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

4) 호혜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 잡힌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
이해관계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자신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동등하게 고려	자기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예상된 보상의 즉각성	즉각성 낮음	즉각성 중간	즉각성 높음
예상된 보상의 등가성	정해지지 않음	등가적	부등가적 (자기 자신을 위한)

자료: 최종렬, 2004: 109.

5)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 작은 그룹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전문가의 수가 많아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음. 전문가 패널의 수를 적게는 1명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서부터 100명이 넘는 패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음.

표 1_ 패널의 특성

구분		내용
마을만들기 경력		평균 8년 6개월
근무 유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4명
	마을만들기 활동가	3명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8명

계 및 실무 전문가들로 선정하였으며,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주제, 목적, 설문횟수, 익명성 보장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3라운드에 걸친 조사에 참여의사를 보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⁶⁾

2. 델파이 라운드별 결과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는 완전 개방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구조화된 틀로 구성할 수 있다(최원희 2009: 55). 본 연구도 패

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문헌을 통해 선정한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중요 요소를 1라운드의 설문지에 제시하고 이 요소들이 마을만들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라운드 설문지는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의 3개 요인 각각에 4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적합도를 5점 리커트⁷⁾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보편적 참여가능성, 상호 간의 주체인식, 참여의 형태, 참여의 자발성이,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으로는 상호작용 능력, 신뢰형성, 권력분배의 특성, 리더의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합의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숙의 과정, 호혜성의 원칙, 합의이행제도, 공동체의식 형성을 제시하였다. 1라운드 결과 가장 높은 적합성 평점을 받은 요인은 신뢰형성(4.67)이었으며, 보편적 참여가능성과 참여의 자발성이 각각 4.47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

표 2_ 델파이 라운드별 분석

요인	구성요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평균	최빈값	평균	최빈값	평균	최빈값
참여성	보편적 참여가능성	4.47	5.0	4.23	5.0	4.38	5.0
	상호 간의 주체인식	3.87	5.0	3.69	4.0	3.85	4.0
	참여의 형태(1R), 참여의 강도(2R, 3R)	4.07	4.0	4.15	4.0	4.12	4.0
	참여의 자발성	4.47	5.0	4.62	5.0	4.50	4.0
상호작용	상호작용능력	3.87	4.0	3.77	4.0	3.92	4.0
	신뢰형성	4.67	5.0	4.62	5.0	4.77	5.0
	권력분배의 특성	3.93	4.0	4.00	4.0	3.92	4.0
	리더의 유형	4.40	4.0	4.15	4.0	4.04	4.0
합의성	숙의 과정	3.93	4.0	4.15	4.0	4.00	4.0
	호혜성의 원칙	4.27	4.0	4.15	4.0	4.31	4.0
	합의이행제도	4.00	4.0	3.85	4.0	3.92	4.0
	공동체의식 형성	3.67	4.0	3.31	4.0	3.62	4.0

6) 패널은 15인으로 구성하였으나 1라운드 진행 후 2인의 패널이 참여의사를 취소하여 2, 3 라운드에서는 13인으로 진행하였음.

7) 구간에 대한 설명은 5점 '매우 적합', 4점 '적합', 3점 '보통', 2점 '부적합', 1점 '매우 부적합'으로 제시되었음.

더의 유형이 4.40, 호혜성의 원칙이 4.27의 순으로 적합도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요인은 공동체의식 형성(3.67)이었다.

1라운드 조사 시 제시된 요인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직접 기재하도록 한 결과 ‘참여의 형태’는 ‘참여의 강도’로 변경하는 것이 요인 설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라운드 설문지는 1라운드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의 형태’요인을 ‘참여의 강도’로 변경하였으며, 1라운드와 동일한 총 1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항목마다 응답자의 1차 선택과 다른 패널들의 1차 응답 결과를 제시하여 각 항목을 재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라운드에서는 신뢰형성과 참여의 자발성이 4.62로 가장 높은 적합성을 평가받았으며, 보편적 참여가능성은 4.23, 참여의 강도와 리더의 유형, 속의 과정, 호혜성의 원칙이 각각 4.15로 나타났다. 2라운드에서도 공동체의식 형성은 3.31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3라운드는 2라운드와 같은 요인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신뢰형성은 1라운드(4.67)와 2라운드(4.62)보다 높은 점수로 가장 높은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참여의 자발성은 2라운드 결과(4.62)보다 조금 낮은 4.50으로 평가받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보편적 참여가능성(4.38), 호혜성의 원칙(4.31), 참여의 강도(4.12), 리더의 유형(4.04), 속의 과정(4.00)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공동체의식은 2라운드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여전히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동체의식 형성이 합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적 측면이 강하다는 일부 패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것이 공동체의식 형성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3. 공동체주의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델파이 3라운드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합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분편차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사분편차는 하한값과 상한값에 위치하는 극단값을 제거하는 특성을 갖는 지표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의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를 측정하는데 사분위수 중 3사분위수에서 1사분위수를 뺀 값을 2로 나누는 공식을 활용하였다.⁸⁾ 델파이에서는 이 값이 작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한 패널의 의견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델파이 1라운드에서는 의견수렴도가 0.0인 경우가 없었으나, 2라운드에서는 상호작용능력, 권력분배의 특성, 합의이행제도의 3개 문항이 0.0으로 나타났고, 3라운드에서는 신뢰형성, 리더의 유형, 속의 과정이 추가되어 총 6개의 문항이 0.0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다음은 표준편차를 활용한 방법으로 각 라운드에

표 3_ 사분편차를 이용한 의견수렴 분석

요인	구성요소	(Q3-Q1)/2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참여성	보편적 참여가능성	0.5	0.5	0.5
	상호 간의 주체인식	1.0	0.5	0.5
	참여의 형태(1R) 참여의 강도(2R, 3R)	0.3	0.5	0.3
	참여의 자발성	0.5	0.5	0.5
상호 작용	상호작용능력	0.5	0.0	0.0
	신뢰형성	0.3	0.5	0.0
	권력분배의 특성	0.8	0.0	0.0
	리더의 유형	0.5	0.5	0.0
합의성	속의 과정	0.3	0.5	0.0
	호혜성의 원칙	0.5	0.5	0.5
	합의이행제도	0.8	0.0	0.0
	공동체의식 형성	0.8	0.5	0.5

주: Q1은 사분위수(Quartile) 중 1사분위수, Q3는 3사분위수.

8) 최원희(2009)는 $D_d = \frac{Q3-Q1}{2}$ 의 공식을 제시하였음.

표 4_ 표준편차를 이용한 의견수렴 분석

요인	구성요소	표준편차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참여성	보편적 참여가능성	0.83	0.83	0.77
	상호 간의 주체인식	1.25	0.85	0.69
	참여의 형태(1R) 참여의 강도(2R, 3R)	0.70	0.69	0.65
	참여의 자발성	0.64	0.51	0.50
상호 작용	상호작용능력	0.74	0.44	0.49
	신뢰형성	0.62	0.65	0.44
	권력분배의 특성	0.80	0.71	0.49
	리더의 유형	0.51	0.69	0.59
합의성	숙의 과정	0.70	0.69	0.58
	호혜성의 원칙	0.70	0.69	0.63
	합의이행제도	0.93	0.69	0.86
	공동체의식 형성	1.18	0.95	0.96

서의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의견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라운드와 3차 라운드의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 참여가능성은 0.83→0.77로 낮아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주체인식도 1.25→0.69로 낮아지고 있다. 패널 간의 의견수렴도가 가장 높은 요인을 살펴보면 1라운드에서는 리더의 유형(0.51), 2라운드에서는 상호작용능력(0.44), 3라운드는 신뢰형성(0.44)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간의 의견수렴도가 가장 낮은 요인은 1라운드의 경우 상호 간의 주체인식(1.25)이며, 2라운드와 3라운드는 공동체의식 형성(0.95, 0.9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 공동체주의 구성요소의 활용

마을만들기에서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성, 상호 작용, 합의성의 구성요소 중 상호작용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의 하위 구성요소에서 신뢰형성은 마을만들기에 적

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참여성에서는 참여의 자발성과 보편적 참여가능성, 참여의 강도, 그리고 상호 간의 주체인식의 순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성은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실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참여가능성’이란 마을구성원 모두에게 마을만들기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 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호 간의 주체인식’은 정보의 전달과 가치의 공유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호 배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의 강도’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수준이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참여 수준이 소극적(일방적 정보 전달)이었는지, 절차적(추진 주체의 설명과 구성원의 의견 제시)이었는지, 적극적(동등한 지위를 지닌 주체들의 정책 과정과 내용)이었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참여성의 하위 요소로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인 ‘참여의 자발성’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속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둘째, 상호작용에서는 신뢰형성이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며 이어서 리더의 유형, 상호작용능력과 권력분배의 특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능력’은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마을의 이슈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교육 등을 진행한 노력들이 마을만들기 활동 과정에 존재하였는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신뢰형성’은 마을공동체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있어 신뢰를 촉진 혹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권력분배의 특

표 5_ 공동체주의 구성요소

요인	구성요소	3라운드		
		평균	(Q3-Q1)/2	표준편차
참여성	보편적 참여가능성	4.38	0.5	0.77
	상호 간의 주체인식	3.85	0.5	0.69
	참여의 형태(1R), 참여의 강도(2R, 3R)	4.12	0.3	0.65
	참여의 자발성	4.50	0.5	0.50
상호작용	상호작용능력	3.92	0.0	0.49
	신뢰형성	4.77	0.0	0.44
	권력분배의 특성	3.92	0.0	0.49
	리더의 유형	4.04	0.0	0.59
합의성	숙의 과정	4.00	0.0	0.58
	호혜성의 원칙	4.31	0.5	0.63
	합의이행제도	3.92	0.0	0.86
	공동체의식 형성	3.62	0.5	0.96

성'은 권력이 특정 주체에 편중된 수직적인 구조인지, 모든 소통참여자들에게 권력이 고루 분배된 수평적인 구조였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이는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일 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의 유형'을 통해서는 리더가 권위적·지시적인 유형이었던지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발전적인 리더의 유형이었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성에서는 호혜성의 원칙과 숙의 과정, 합의이행제도와 공동체의식 형성의 순으로 마을만들기에 적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성은 공동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숙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합의를 도출하는 기준으로서 '호혜성의 원칙'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마을 구성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며, 마을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호혜성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이행'의 측

면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합의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V. 결론

공동체적 좋은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마을만들기가 도시개발의 대안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라는 철학적 논의를 마을만들기라는 공간적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주요 관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이라는 상위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을만들기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도시계획이나, 거대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도시개발과는 달리 마을구성원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의 자원을 발굴·보전하고, 마을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을만들기는 마을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지

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힘을 키워나가고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계획 및 정책의 수혜 대상(對象)이자 객체로 인식되었던 개인이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 정의론과 조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場)이 될 수 있다.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공공선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단순히 합쳐놓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Lovett 1998: 3), 공동선에 대한 결정은 동등한 권한을 지닌 주민들이 참여하여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과 권한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좋은 시민(good citizen)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을만들기 활동은 다양한 집단의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학습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즉, 마을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지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을만들기가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 논의한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의 분석 기준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한다면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실현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 김기호, 김도년, 김세용, 김은희, 박소현. 2012. 우리, 마을만들기. 고양: 나무도시.
- 노승용, 박경준. 2009. 델파이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편, 알기 쉬운 국토연구방법론. 안양: 국토연구원.
- 박재길 외. 2004.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변영진. 1994. 존 롤즈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송재룡. 2001. 포스트모던 시대와 공동체주의.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안균오. 2011.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안진성. 2011. 델파이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위중희. 1999. 공리주의적 정책결정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지방택지공영개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윤혜정. 1994. J. Rawls의 정의개념에 관한 시론: 도시계획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시정연구 2권, 2호: 83-99.
- 최원희. 2009. 사회복지 수퍼비전의 중요성공요인에 대한 델파이 및 AHP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권, 6호: 97-132.
- Etzioni, Amitai. 1996. The responsive community: A communitarian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no.1: 1-11.
- Lovett, F. N. 1998. *National Parks and the Common Good: A Communitarian Perspective*. Boston: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Martino, J. P. 1993. *Technological Forecasting for Decision Making*. 3rd ed. U.S.: McGraw-Hill.
- Sites, William. 1998. Communitarian theory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3, no.1: 57-65.

- 논문 접수일: 2014. 10. 13
- 심사 시작일: 2014. 10. 17
- 심사 완료일: 2014. 12. 1

요약

주제어: 델파이기법, 공동체주의,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 마을만들기

정부와 시장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공동체주의 정의론과 델파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동체주의 정의

론의 구성요소로서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는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성 요소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참여성의 하위요소인 보편적 참여가능성, 상호간의 주체인식, 참여의 강도, 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하위요소인 상호작용 능력, 신뢰형성, 권력분배의 특성, 리더의 유형, 합의성의 하위요소인 속의 과정, 호혜성의 원칙, 합의 이행제도, 공동체 의식 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